

# OCI, 화학산업 외길 50주년 맞아...

## BOG, 지속가능한 가치 창조기업 선정 ... 신·재생 에너지 리더 도약

화학산업 외길을 걸어온 OCI(구 동양제철화학)가 11월8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수영 OCI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11월6일 서울 소공동 본사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지속가능한 가치 창조기업 세계 1위로 선정하는 등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예기치 않은 시장변화에 대응해 매일 스스로 새롭게 가다듬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OCI는 1959년 설립된 동양화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양화학은 국내 최초로 소다회 공장을 건설해 국내 화학산업의 기초가 된 알칼리(Alkali) 공업을 일으킨 이후 무기화학, 석유·석탄화학,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8년부터는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 상업 생산에 성공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2009년 9월에는 폴리실리콘 제2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생산능력을 1만6500톤으로 확대해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OCI는 2008년 매출 2조1198억원, 경상이익 4073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영업실적을 거뒀다.

이어 2009년 10월엔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 세계 1위 지속가능한 가치 창조기업으로 선정돼 그동안 추진해온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OCI 관계자는 “반세기 동안 이룬 성장은 사람이 곧 기업이라는 창업정신을 이어왔기 때문”이라면서 “OCI 인재경영시스템의 중심에는 기회, 도전, 변화의 핵심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9>